

## 우리가 만날 수능

together

수능 국어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사고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we

수능 국어의 본질적 접근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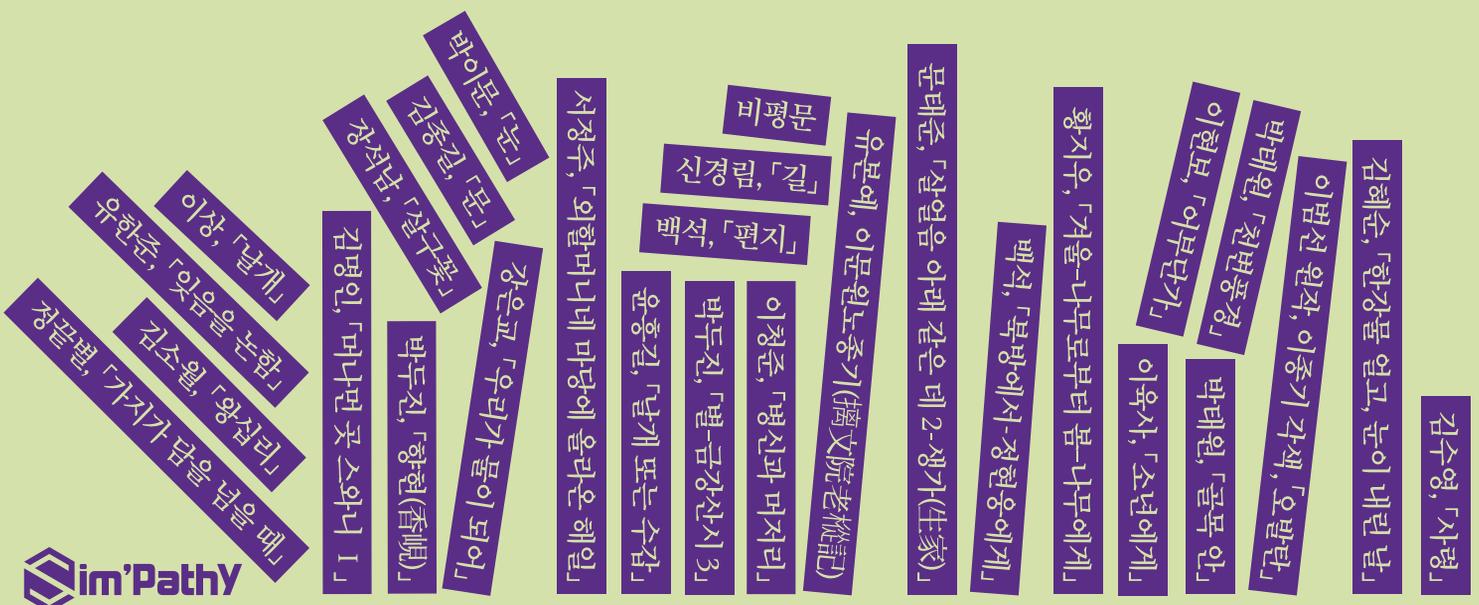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15 개정교육과정

face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텍스트를 끊임없이 읽고 경험하면서 생각의 체력을 가르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만날 수능

## PART 1 혼자하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예습을 할 수 있습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뭇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한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0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의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에 계기가 형성된다.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에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한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다.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뿐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내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나?……’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거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쁜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옆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틈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그러나 ㉠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울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뿐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제6절 몰락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홀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서는,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A]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룡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낡았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

# 우리가 만날 수능

## PART 2 같이하기

본인이 연습을 한 부분과 수업을 들으며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의 사고 과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㉔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㉕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얼고.



- 김혜순,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

## 0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 02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와 계기가 형성된다.
- ② ㉒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 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③ ㉓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④ ㉔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⑤ ㉕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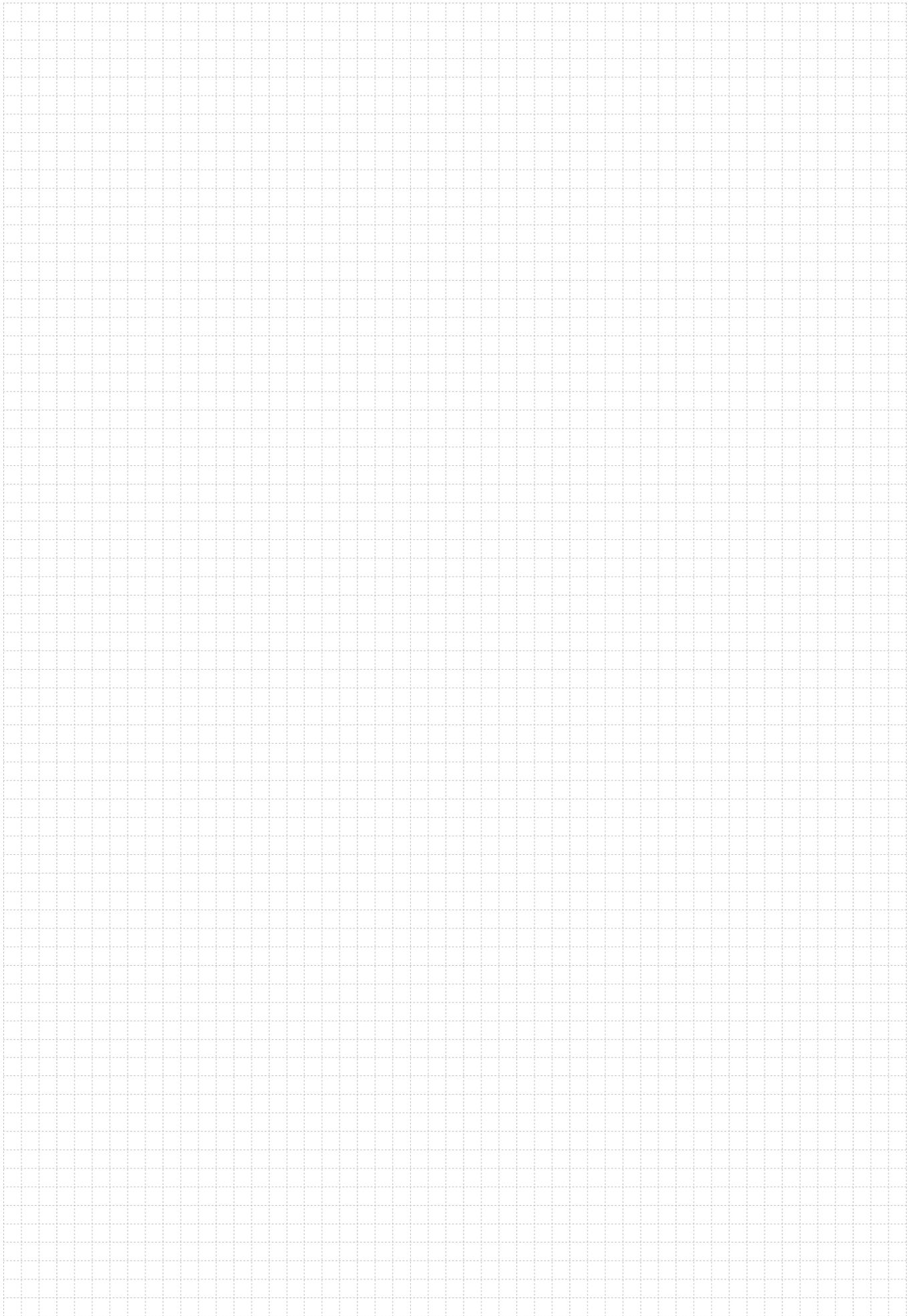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한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우리가 만날 수능

## PART 3 복습시트

주교재를 통해 진행된 지문들에 대한 복습 시트를 제공합니다.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다룬 유사 기출 문제의 목록은 물론,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 삽화(이미지)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교재에서 다룬 지문들 역시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도록 탑재하였습니다. 단, 복습편 교재를 미리 보고 수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끝난 이후, 수업 때 들은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복습편 교재를 활용하시면 복습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어떤 사고를 해야 하는지 찬우의 Pin Point, 찬우의 Summary 등의 이정표를 설치하여, 수험생 스스로 사고를 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학습방법안내서, 출제 방향 보도자료, 출제 근거, 이의제기 답변까지 출제기관에서 제시한 모든 내용들을 탑재하였습니다.

## 빠른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⑤	②	①	⑤	①	④	②	⑤	⑤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②	②	③	④	④	⑤	⑤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①	④	④	⑤	③	③	④	④	①	②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①	④	⑤	⑤	④	③	④	③	⑤	②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⑤	④	⑤	③	④	④	③	⑤	②	①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③	③	②	⑤	②	②	③	②	②	②
61	62								
④	②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나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나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훈련반나뉘,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나

- ✓ 화자는 ‘활자’와 자신, 즉 ‘나의 영(靈)’을 대비하고 있다.
  - (의인화된)‘활자’는 자유를 말하는 것과 달리 화자 자신(‘나의 영’)은 그렇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또한 이처럼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자신(나의 영)이 ‘죽어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활자’의 속성은 결국 ‘나의 영(靈)’을 인식하는 성찰의 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한편, 이러한 화자의 인식을 통해 화자가 ‘자유’ 또는 ‘자유를 말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나**데 :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형용사, ‘이다’의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의 뒤에 붙어, 뒤 절의 말을 끌어내기 위하여 관련될 만한 사실을 먼저 제시함을 나타내는 말. 흔히 앞 절의 내용을 뒤 절의 내용과 대립되도록 이어 주는 데 쓰인다. [문예] 그는 키는 **큰데** 체구가 작다.

\* **영(靈)** : 1. 민속 신으로 받아들여지는 영혼 또는 자연물. [문예] 그들은 심령술의 대가이기도 했다. 대소사 간 진퇴를 결정할 때면 **영**의 계시로 모래 위에 쓰인 글씨를 가지고 판단했다.  
2. 죽은 사람의 넋. [문예] 천당이란 말도 따지고 보면 내세에 **영**이 사는 처소로서는 같은 셈이지.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 ✓ 앞서 (자유를) 말하는 대상이 ‘활자’로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맥락상 이 구절의 ‘벗’, ‘그대’는 ‘활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 화자는 ‘활자’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다.
  - 즉 화자는 자유를 지향하지만,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 ✓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활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 앞서 파악했듯이, 화자는 ‘활자’와 달리 자유를 말하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자신이 ‘활자’와 달리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를 드러낸 것이다(반성).
  - 따라서 화자는 ‘활자’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은 이러한 자기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개 좀 들어 바보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 ✓ 화자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 이때의 '고요함'은 자유를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화자는 현실 인식을 통해 자신과 더불어 자유를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화자가 존재하는 현실은 모두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억압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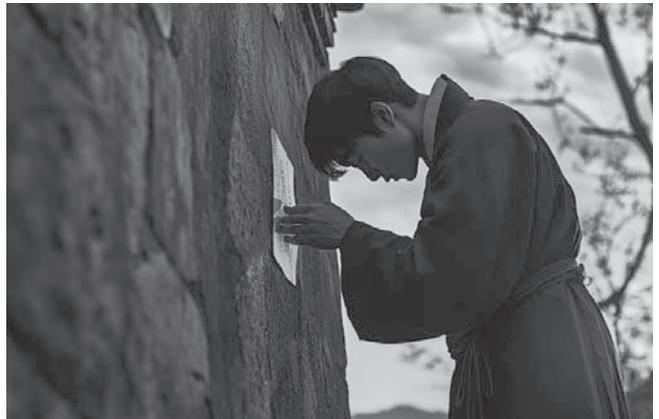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 ✓ '그대', 즉 '활자'가 자유를 말하는 것을 두고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화자를 포함해 자유를 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들'이라고 지칭하며 '섬세'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 맥락상 '섬세'는 '정의'의 반대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섬세성'이 '가냘프고 가는 성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쉽게 저항하여 자유를 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상황을 계산하는, 눈치를 보는(섬세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 ✓ 또한 화자는 이처럼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자신의 일상을 '욕된 교외'라고 지칭하며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앞서 '활자'는 **간간이** 자유를 말하고 있었다. 이는 **활자마저도 마음껏 자유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화자 입장에서는 '그대(활자)의 정의도' 맘에 들지 않는 것이다.**

-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력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결국 화자는 활자마저도 자유를 마음껏 말하지 못하는 상황과 그것보다도 더 침묵하고 있는 본인의 상황을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라는 시간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욕되다**: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럽다. [용례] 이렇게 **욕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 **교외(郊外)**: 도시의 주변 지역. [용례] 대학에 갓 들어간 해 여름. **교외로** 몇몇이 어울려 소풍을 나간 적이 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거북목일 것이다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 첫 연과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시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보기 〉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다. 당시 <보기> 문제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묻고 있다.

앞서 작품을 감상할 때 화자가 “자유를 말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을 잡아냈다. 이처럼 화자가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낼 때 그 속에서 이상향, 지향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자.

한편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는 자의 설움과 비애’라는 구절은 소시민성을 자각한 화자의 비애를 의미한다. 소시민성을 가진 화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자신이 이미 가진 사회적, 경제적 자산을 지키는 일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결국 (가)의 화자는 자신의 소시민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 혼련받나봐, 아냐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 화자는 한강물이 언 날, 한강 위에 서서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인식한다.
  - 강물이 얼어 있는 상황이므로, 강물에 붙들렸다는 것은 강물과 더불어 배들도 뚝뚝 얼어붙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 ✓ 화자는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배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비웃었다.
  - 왜 배들을 비웃는지, 이후의 구절들을 감상하며 파악해보자.
- ✓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보며 시시덕거리던 ‘우리들’은 이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강물 위로 나뒹굴며 웃었다.
- ✓ ‘우리(화자)’는 그러던 와중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보았다.

- 화자는 강물 위에서 나뒹굴며 웃던 중 **얼음(바닥)에 비친 하늘의 모습을 보았다고 볼 수 있다.**
- 그 사이에 불박힌 말을 보았다는 것은 하늘이 비치는 얼음 속 자신의 모습(내면세계)이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식되었다는 의미이다.



누구인가? [공예ver]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 ✓ 화자는 처음에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비웃다가, 문득 **얼음에 비친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보**니 사실상 배들과 자신들의 처지가 다르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다.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 ✓ ‘숨죽이고 있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침묵하고 있는) ‘우리들’과 나아가지 못하는 배들을 동시에 지칭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 화자는 얼음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웃고 있는데, 이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비웃는 것과 같다.
- ✓ 결국, 붙들려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배들을 통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처한 현실 역시 사실상 비웃음, 즉 **자조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드롭키를 받아라

## 0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①	②	③	④	⑤
1%	6%	3%	4%	86%

### 찬우의 Pin Point

내면세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선지를 훑어보면, ⑤번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적 표현을 열거했으나, 이를 통해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다만 화자가 자유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침묵하는 모습을 자조하는 것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시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경외감’이란 자아가 어떤 대상을 존경·공경하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을 인식할 때 촉발되는 정서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 ‘활자’를 ‘벗’, ‘그대’라고 부르는 것에서 대상에 대한 호칭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이’, ‘저’라는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구절에서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화자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러한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지는 않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 어떠한 정서를 드러내는 구절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면 해당 정서가 부각 및 심화될 수 있다.  
→ 작품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구절의 반복을 통해 활자는 자유를 말하지만 화자 자신, 즉 ‘나의 영(靈)’은 그렇지 못한 시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